



산과 마을 마음모아 포교불사

전북 고창·부안 정음·순창

고창·부안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고창과 부안지역 불교는 한국불교의 오지 가운데 하나로 치부됐다. 시(市) 단위 도시가 하나도 없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기 때문이다.

호남평야의 끝자락인 이 지역은 '젊은이는 떠나고 노인만 남은' 한국농촌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남아있는 이들은 농사일에 치여 신생활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형편이다. 젊은층이 없기에 어린이·청소년·청년 불자가 없어 희망조차 캄캄한 지역이다.

그러다보니 사암마다 '어떻게 해보고 싶어도 꿈쩍하지 않는다'고 하소연한다. 이는 불교뿐 아니라 타종교도 마찬가지여서 오늘의 농촌문제는 지역 종교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다행히 2001년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변화가 왔다. 상주인구는 아니어도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다. 선운사, 내소사 등 지역사찰에도 사람들이 북적거리기 시작했다. 불교요지였던 이 지역에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지역불교도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조계종 24교구본사 선운사(주지 범여 스님)는 여느 사찰이 그러하듯 지난 몇 년간 건물불사에 주력했다. 강원, 성보박물관, 요사채 등 대종이 거처하는데 시급한 전각부터 복원했다. 그렇지만 지난해 주지로 부임한 범여 스님은 "이제 건물불사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불교발전과 지역포교를 위해서는 건물불사에만 머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선운사는 지역불교의 숙원사업인 '선운사 중앙포교당'을 고창읍내에 건립할 예정이다. 내년 개원을 목표로 부지 1200평을 매입한 선운사는 포교당을 법당은 물론 유치원을 비롯해 각종 수행공간이 들어서도록 설계해 놓고 있다. 이곳에서 지역불자와 일반인에게 불교기초교리, 불교문화 강좌를 운영할 방침이다.

지난해 전북 고창읍내에 선운사 승가대학을 개설한 범여 스님은 지역문화발전 위해 지난 가을 경내에서 산사음악회를 열었다. 받는 불교에서 주는 불교를 지향하는 선운사가 지역민을 위해 개최한 문화공연이었다.

이밖에 선운사는 경승실, 교도소, 군부대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한 포교도 중점사업으로 정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고창읍내에서 가까이 자리한 천년고찰 문수사(주지 선법)도 그동안 건물불사를 피해갈 수 없었다. 당장 쓰러져가는 전각을 방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금년 들어 주지 선법 스님은 '공부하자'며 신도들을 다그쳤다. 언제 사라졌는지조차 알 수 없는 초하루법회를 복원했다. 내년에는 신도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교구본사인 선운사의 변화에 발맞춰 지역포교에 함께 나서겠다는 것이다.

용화사 주지 범은 스님(고창불교사암연 부회장)은 20여년간 고창불교 발전을 위해 헌신해왔다. 사암연합회를 중심으로 초파일 제등행진, 불교문화강좌 등을 이끌며 불교를 알리고자 애쓰고 있다. 또한 스님은 직접 농사를 지으며 지역민과 호흡을 함께하고 있다. 지난해엔 매실나무 700주를 심어 사찰경계 자립을 꾀하고 있다.

부안 내소사(주지 진원)가 자리한 능가산은 국내 유수의 선원이 두 개나 자리잡은 수행처이다. 내소사 봉래선원과 월명암 사성선원은 대표적인 선원으로 수많은 선지식을 배출했다. 내소사도 서해안고속도로 특수를 톡톡히 보아 평

일에도 참배객이 줄을 잇는다. 금년 봄부터 템플 스테이 사찰로 지정된 내소사는 사찰체험에 미8군 병사들을 비롯한 외국인들의 지원이 많은 편이다. 내소사 템플 스테이는 현재 14자에 걸쳐 800여명이 거쳐 갔으며, 인터넷 동호회 '전나무술집이 아름다운 내소사(http://cafe.daum.net/naesososa)'에서 모임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부안불교 활성화를 위해 연중 4차례 신도중심 템플 스테이를 계획하고 있다. 내소사는 지역불교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기복성심의 실행을 꼽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 내년 2월6개월 과정의 불교대학을 개설할 예정이다.

진표 율사가 민방으로 죽음을 만들었다고 전하는 개암사(주지 혜은)는 현재도 죽엄의 본고장으로 알려져 있다. 13년전 주지로 부임한 혜은 스님은 한국 전정 당시 소실된 전각들을 복원하며 중창불사를 펼쳐 도량을 일신했다.

부안 군청 뒤에 자리한 작은 암자 해원사(주지 정원)는 부안불교의 현대역사이기도 하다. 처음엔 혜경



지역민에게 회향하는 불교를 지향하는 고창 선운사는 지난 가을 경내에서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정음의 가장 큰 행사로 자리잡은 부처님 그리기 대회(위).

정음·순창

정음을 대표하는 브랜드는 단연코 내장사(주지 재훈) 단풍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정음 불교는 일반화 되어있지 않다. 내장사 주지 재훈 스님은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한 첫 발걸음을 사암연합회 재건에 두고 주력해 왔다. 지난 여름 신도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단기 기초교리강좌를 운영했으나 크게 성황을 이루지는 못했다. 이번 겨울에는 신도들을 대상으로 교리교육을 겸한 수련회를 구성하고 있다.

재훈 스님은 "정음시내에 자리한 '내장사 포교당'을 현대화된 회관으로 중창하기위해 설계를 마쳤으며, 임기중에 반드시 기공식이라도 하겠다"고 밝혔다. 정음불교회관은 건평 100평, 7층 건물로 법당, 강 의실, 각종 선당단체 사무실, 예식장 등을 갖춰 정음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내장산 벽련암 주지 진공 스님은 정음경찰서 경승실장을 10년 넘게 맡고 있다. 경승제도가 생기기 전부터 정음 경찰서 유치인과 경찰불자들을 지도해 오고 있는 진공 스님은 호남지역 경승의 산 증인이기도 하다.

옛 내장사 터에 자리한 벽련암은 진공 스님의 원력으로 터만 남은 자리에 대웅전, 요사채, 시민선방(선설당) 등 오늘의 대가람을 이루었다. 내년 봄에 개원되는 '선설당'은 48평 규모의 시민선방으로 수행정진뿐 아니라 예절학교, 다도교육, 교양대학 등을 운영해 '불자 정예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음지역 포교일선에서 가장 바쁜 스님으로 승천 스님(일광사 주지)을 꼽는다. 교도소, 군부대, 학생회, 청년회 등 각종 선당단체 법문은 물론 불교대학 강의에 이르기까지 스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스님이 후원하는 행사 가운데 청년회가 주관하는 '부처님그리기대회'는 정음에서 가장 큰 불교행사로 자리잡았다. 금년 7회 대회에는 350여명의 어린이가 참가해 부처님을 화선지에 담았다. 지난 10월에는 지역내 군부대 불자장병들을 한자리에 모아 '군장병 체육대회 한마당'을 주선했다. 해마다 명절 때는 교도소 수용자 2000여명분의 음식을 준비해 위문법회를 갖는다. 그러다보니 사찰 운영비의 대부분을 포교 지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순창은 지역적으로 고창, 부안에 비해 산촌에 속한다. 그래서인지 타지역에 비해 불교세가 더욱 약하며 두드러진 신생활은 보이지 않는다.

순창을 대표하는 사찰은 강천사(주지 재택)로 강천산 깊은 계곡에 자리해 있다. 지난 여름, 지역포교를 위해 '사찰체험 수련회'를 공고했으나 일가족 4명만 참석했다. 주지 재택 스님은 "그래도 포기할 수 없다"며 "내년에 '심우당'을 시민선방으로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비록 한 사람이라도 찾는 이가 있다

면 수련회도 개최하고 선방도 열어놓을 계획이다. 근대 학생들의 요람으로 불리는 구암사(주지 지공)도 강천사와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주지 지공 스님이 벽파-석두-설류-박한영 스님으로 이어지는 구암사 강원을 되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지공 스님은 신도 20여명과 구암사 강원복원을 위해 매월 장학기금을 적립하고 있다.

몇 해 전 폐교된 금과중학교를 도암 스님이 인수해 보현사로 개창했다. 스님은 학교건물을 천불전, 참선방은 물론 황도방, 다실 등을 갖춘 연수도량으로 리모델링했다. 교실 한 칸에는 스님이 40여년간 직접 수집한 수석도 전시해 놓고 있다. 또한 스님은 20여년째 홀로된 노인들을 모시고 정진하고 있어 불자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처럼 전북 서부해안과 정음, 순창 지역의 불교는 거창하지 않으나 소리 없이 점에서 서서히 깨어나고 있다.

고창·부안·정음·순창·이준업 기자

인터뷰 / 선운사 주지 범여 스님

“베푸는 불교, 교육·전법에 매진”

선운사 승가대 개설·산사음악회도 열어

“수행이나 포교에 있어 외형보다 내실을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건물불사의 원력을 승가교육과 지역포교로 돌려 미래불교의 초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4월, 선운사 주지부임을 받은 범여 스님(사진)은 진산식 대신 관내 노인 6000여명을 초청해 경로잔치를 열었다. 그것도 사중의 예산을 축낸 것이 아니라 사비를 들여 치른 대규모 잔치였다. 그동안 사찰에서 받기만 했다던 이제는 지역민에게 베푸는 불교를 시행하겠다는 스님의 강한 의지였다.

고창에서 나고, 출가한 범여 스님은 불교세가 열약한 전북에 승가교육기관인 강원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왔다. 그래서 선운사 주지로 부임한 첫해에 우선적으로 '선운사 승가대학'을 개설했다. “형편이 어려울수록 인재양성에 혼신을 기울여야 한다”는 스님의 신념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

생활불교를 강조하는 스님은 지역포교에 있

어서도 헌신적이다. 사찰이 지역민과 하나되는 공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 지난 가을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또한 지역불자들의 숙원사업인 불교회관(선운사 중앙포교당) 건립을 위해 고창읍내에 1200평의 부지를 확보했다.

내년에 준공될 포교당은 유치원과 신도교육 등 신생활의 활동공간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처럼 외형보다 내실을 강조하는 범여 스님은 “교구 산하 40여개의 말사와 더불어 ‘출·재가’가 더불어 발전하는 ‘교구’가 되도록 혼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봉래선원장 철산 스님이 말하는 ‘불교전통회 7일 용맹정진’

“은산철벽 꿰뚫겠다... 성성한 눈빛”

37년전 결성한 해안 스님 결사 뜻 이어

내소사 봉래선원에는 35년째 승속이 하나되어 '7일 용맹정진'하는 결사모임이 있다. 1967년, 근세의 큰 스승인 해안(海眼·1901~1974) 스님이 '7일안에 깨우치라'며 주창한 '불교전통회(佛敎傳統會)'이다.

“전통회는 '내가 먼저 깨달아 이웃에게 전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출·재가자는 물론 이교도까지도 마음을 찾겠다는 사람이면 누구나 와서 정진토록 문을 개방했습니다” 젊은 시절 서울 대원암에서 열린 전통회 특별정진에 참가한 인연으로 출가사문의 길에 들어선 철산 스님(내소사 봉래선원장·사진)은 “해안 큰스님은 평소 자비심 넘치는 스님이셨지만 정진에 임하면 무서운 사자와 같았다”고 회고했다.

백양사 조실 학명 스님 밑에서 7일만에 '은산철벽'을 꿰뚫고 득도한 해안 스님은 평소 “상근기는 언하(言下)에 깨치고, 중근기는 법문을 들으면 깨치며, 아무리 매주처럼 미련한 하근기라도 일주일이면 깨달는다”고 강조했다.

철산 스님은 또한 “해안 스님은 '수가불자들이 수행해야 한국불교가 희망 있다'면서 재가불자의 마음공부를 특별히 강조했다”며 “지금도 전통회는 스님의 뜻에 따라 승·속이 함께 매년 (음)3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내소사 봉래선원에서 용맹정진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금년 봄, 66회 전통회 용맹정진에는 50여명의 대중이 정진에 임했다. 특히 이번 정진을 마친 뒤에, 정진에 참가한 대중 가운데 한 보살의 발심으로 해안 스님 금강경과 법문을 CD로 복원해 3000질을 일반에 보급하기도 했다.



지역불교 이끄는 주역들



제덕 스님
순창 강천사 주지



재훈 스님
정음 내장사 주지



진공 스님
정음 벽련암 주지



진원 스님
부안 내소사 주지



지공 스님
순창 구암사 주지



도암 스님
순창 보현사 주지



승원 스님
정음 일광사 주지



범은 스님
고창 용화사 주지



선법 스님
고창 문수사 주지



혜오 스님
부안 개암사 주지



혜경 스님
부안 해원사



소공 거사
전북불교회 회장